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10.21. ~ 10.27.)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왕하 2 - 8	살후 2 - 딤편 5
	개인	단 6 - 12	시 112 - 119:49-72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불가항력적 은혜		
	<p>고린도전서 2장 4-5절</p> <p>4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p> <p>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p>		



시편 112,113편 / 할렐루야**개요**

112:1-1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찬송

113:1-9 여호와의 종의 찬송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시 119:1).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일용할 양식과 의로운 삶에 대한 보응과 주께 높임을 받는 것들입니다(시 119:2-9).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시 119:10).

시편 113편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통해,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합니다(시 113:1-3). 주님의 높으심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높으십니다(시 113:4,5).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을 살피시며,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113:6-9).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내려오십니다. 타락한 이후 인간은 궁핍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내려오십니다. 사라처럼, 한나처럼, 엘리사벳처럼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궁핍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복을 성령을 통해 주시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편 114,115편 / 이스라엘의 하나님**개요**

114:1-8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115:1-18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시편 114편은 출애굽을 회상하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라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었습니다(시 114:1,2).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다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놀라운 역사로 인해 온 산이 흔들렸습니다(시 114:3-6). 위대하신 주님 앞에 온 땅은 떨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시 114:7,8).

시편 115편은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면을 담은 시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입니다(시 115:1,2).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시 115:3-8). 또한 그분은 의지할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시 115:9-11). 그분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시 115:12-15). 그러므로 모든 산 자는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시 115:16-18).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만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모든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마 6:9).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오늘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10월 23일(수)

왕하4

딤편1

단8

시116

시편 116편 /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개요

- 1-5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 6-11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 12-19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긍휼의 하나님을 향해 평생 기도합니다(1-5절). 순수함으로 주께 나아가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영혼의 안식을 얻고자 합니다(6-11절).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합니다(12-19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시 16:3) 주님은 그들의 죽음 까지도 귀중하게 보십니다(15절). 주의 백성들은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1,2절).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사랑으로 사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

기도

우리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17,118편 / 여호와께 감사하라**개요**

117:1-2 모든 나라들이 찬양하라

118:1-16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118:17-29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입니다. 모든 백성이 주께 나아와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시 117:1,2). 로마서 15장 11절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은 모든 신자들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시편 118편은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응답을 얻었습니다(시 118:5). 이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시 118:1-4). 여호와는 자기 편이 되셔서 그의 능력과 찬송, 또 구원이 되셨습니다(시 118:6-16). 그는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길 소원합니다(시 118:17). 주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 버려진 돌과 같던 자신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시 118:18-29).

예수님은 시인과 같이 사람에게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벧전 2:4).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산 돌 같이 주의 집으로 세워집니다(벧전 2:5).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벧전 2:9).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의 삶이야말로 시편 118편의 노래와 같습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24절 / 말씀을 통해 얻는 복**개요**

1-8 복

9-16 정결

17-24 주님의 세계

시편 119편은 말씀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첫 글자로 써서 기록하였습니다. 8절을 한 단락으로 하여 2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1-8절)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의 복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가장 지혜로워서 의로운 판단을 깨닫게 합니다(7절).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3,7절). 둘째 단락(9-16절)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가르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1,16절). 셋째 단락(17-24절)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합니다(18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알려줍니다. 우리를 죄에서 떠나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떠나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나, 주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며 가장 선하고 유익한 조언을 듣게 합니다(19,18,24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골 3:16).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선한 길을 가르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25-48절 / 말씀을 따라 사는 삶**개요**

25-32 살아나게 하소서

33-40 가르치소서

41-48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넷째 단락(25-32절)은 말씀이 자신을 세움을 가르칩니다. 거짓 행위를 떠날 수 있는 은혜가 말씀에 있습니다(29절). 그러므로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게 하시면 그 길로 가겠다고 소원합니다(32절). 다섯째 단락(33-40절)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은 탐욕과 허탄한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36,37절).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33-35절). 여섯째 단락(41-48절)은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갈망합니다(45절).

성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찾기에 골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안에서 주의 법도를 찾고 거기에 자기 길을 놓습니다.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롬 6:6). 말씀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히 10:22).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49-72절 / 고난 중에도 붙잡는 말씀**개요**

49-56 고난 중의 위로

57-64 오직 말씀

65-72 고난을 통한 이해

일곱째 단락(49-56절)은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며, 그것이야말로 자기 재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덟째 단락(57-64절)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구합니다(57,58절). 신속하고 굳건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길 구합니다(59-64절). 아홉째 단락(65-72절)은 고난 중에 깨달은 말씀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할 때 주의 말씀으로 그 본의를 깨닫습니다(67,71절).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노래합니다(72절).

말씀의 가치는 책상 앞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갔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참 진리이며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확인합니다.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따라 사는 듯하나, 수박 겉핥기 같은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67절).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글에서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마 6:26).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게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풍성한 열매를 더하는 순모임

<약 1:22-27, >

1.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는 어떻게 바꾸어 쓰고 있나요?(약 1:18,21,25)
2. 야고보서 1장 22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나요?(약 1:22)
3.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요?(약 1:22,23-24,26)
4.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약 1:25; 눅 11:28)
5.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요?(약 1:27; 마 7:17-18; 고전 13:4-7)
6.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생각나나요? 나를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나눔

1. 교회를 위한 기도

- 1)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살도록
- 2)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자라나도록
- 3)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도록
- 4)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 5) 어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2. 나라를 위한 기도

- 1)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도록
- 2)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도록
- 3) 다음 세대 지도자가 준비되도록

3. 나를 위한 기도

- 1)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 2)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목상한 말씀을 토대로